

세계ODA 사업동향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본 내용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하 코이카)과의 협력 아래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개발사업 관련 주요 ODA사업에 대한 소개

전자정부 분야 ODA사업

‘UN 전자정부지수 평가 3회 연속 1위’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부문에서 받은 성적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식어인 ‘IT 강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한국의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도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KOICA 사업 통해 정부 최초 특허시스템 도입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 사업(2011~2013년/420만 불)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을 하나의 재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창작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기술개발비 회수를 가능케 한다. 단, 일정 보존기간에 한해서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기술을 이용, 실시할 수 있다. 이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국가 산업 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사업자본의 하나로 여겨지면서부

터다. 시장에서의 기술 선점과 지적 정보 보호, 특허 관련 분쟁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획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KOIC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420만 불 규모로 ‘아제르바이잔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의 문서 기반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작업이다.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 사업의 시스템은 특허 출원, 전자 접수, DB 구축 및 검색 자동화, 온라인 수수료 납부 등 우리나라 특허법의 핵심 서비스 기능을 포함, 이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아제르바이잔 국가 특성에 맞춰 구성됐다. 또한 대국민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 토대 마련, 관련 자재 지원, 기술 전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1) 지식 재산권 출원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일반인의 지식재산 정보에의 접근성 개선 등의 결과를 낳았다. 현재 수원기관인 아제르바이잔 기술표준특허위원회는 수작업 기반 업무 환경에서 시스템 기반 업무환경으로 완벽히 전환했고, 민원인의 전자출원 비율도 30% 수준에 육박하는 등 지식재산 부문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사업은 아제르바이잔의 타 정부부처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대 개도국 전자정부 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어, 향후 인근 CIS 국가 및 중동국가들을 중심으로 특히 정보화 협력의 요청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CA 중동중앙아팀 김나영

카메룬, KOICA와 중앙아프리카의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 성장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2014년/160만 불)

얼마 전 발표된 2014년 유엔전자정부평가에서 카메룬은 193개국 중 144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가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전자정부 선도 국가를 목표로 한 카메룬은 149위(2010년), 147위(2012년)로 비교적 꾸준하게 이 분야에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전자정부 분야 세계 공인 1위 국가로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 KOICA의 지속적인 지원이 자리한다.

KOICA와 카메룬의 전자정부 협력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안정적인 건축을 위해 땅의 기초를 다지듯이, KOICA는 카메룬의 전자정부 기반 마련을 위해 ‘공인인증체계 구축사업(2010~2012년/280만불)’을 실시했다. 전자정부 운영을 위한 핵심 중 하나인 사용자 인증체계를 구축해나갔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교환, 전자상거래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KOICA는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2014년/160만불)’을 진행하며, 점진적으로 전자

정부 분야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 및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전자정부의 대표적 분야인 전자조달 체계 수립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1) 가장 기본적인 전자조달 포탈 구축에서부터, 2) 법제도 및 장기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 3) 행정저항 및 안정적 전자조달 체계 정착을 위한 사용자 인식개선 및 조달 관계자 역량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저항과 사용자의 미온적 참여다. KOICA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외에도 국가 단위의 전자조달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용자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가했다. 이것이 동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과거 지원사업인 ‘공인인증체계 구축사업’과의 연동을 통해 카메룬 내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기술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선진 전자정부 노하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카메룬을 전자정부로 한 단계 더 가깝게 하고자 현재 KOICA는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카메룬 내 KOICA의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경험 전수가 계속돼 2016년에 실시될 유엔전자정부평가에서 카메룬의 순위가 상승하길 바란다. 또한 전자정부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카메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해본다.

KOICA 서아프리카팀 이규홍

몽골,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국 심사를 위한 첫 걸음

출입국관리시스템 현대화 사업(2013~2016년/500만 불)

몽골은 90년대 자본주의 사회 체제로의 개편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내외국인의 출입국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연간 출입국자 수는 약 450만 명이고 이중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120만 명으로 전체 몽골 인구의 약 40% 정도의 규모다. 그러나 현재 몽골은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 관리법,


전자주민등록 및 전자여권 정책 등 2010년 이후 개정된 각종 법령 및 정책이 현행 출입국 관리시스템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미등록 불법 체류자 및 강제 추방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검색 및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상호 교환연수 등 인적교류 및 기술지원을 추진, 201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 우리나라 법무부와 몽골 이민청은 이런 상황 속에서 KOICA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KOICA는 2013년부터 '출입국관리시스템 현대화 사업(2013~2016년/500만불)'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통합시스템을 몽골 국제공항 및 국경의 48개 출입국사무소에 적용,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동 사업은 분리돼 있던 몽골 내 외국인거주자 등록시스템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동시에 출입국 분야의 법제도를 자문하고, 컨설팅 수행을 통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최종적으로는 몽골 출입국관리시스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1) 출입국관리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컨설팅 업무 2) 통합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자재 지원 3) 인적자원 역량을 제고를 위한 국내초청연수 등을 실행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시스템 안정화 단계와 최종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몽골은 외국인과 자국민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해 자국민의 출입국심사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출입국자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도 이동식 출입국심사기기의 사용으로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 관련 DB 관리를 통해 국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몽골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의 부문별 22개 과제 중에서 '몽골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몽골 국회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개선사업', '몽골 국유재산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과제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KOICA의 지원을 통해 몽골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공공행정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선진화된 민주화 시스템을 확보하길 바란다. 

KOICA 동북아태평양팀 김상원